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3월 4일 (제94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히6:18). 나는 거짓말을 못하지는 않지만 안한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위선을 떠는 자들이 제일 싫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가 좋다.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허세를 떠는 자들이 있다. 보면 안다. 30년 넘게 사람들만 대했는데 내가 왜 모르겠는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없는데 가진 척 하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는 자들... 그저 알고 속아 줄 뿐이다. 그러나 솔직히 그들과 대화하면 피곤하다. 진실, 진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다. 속은 썩어 무그러지고 구더기가 우글우글한데 겉만 번지르르한 것을 비유하신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신이 경건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경건한 체한 것이다.

나는 솔직해지려고 노력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포도주 먹었다고 하고, 자식이 속 썩이니 기도해달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말에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박수를 친다. 진실과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리라.

우리 솔직해지자. 내 모습 그대로 살자. 척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허세부리지 말고 살자. 그래야 사는 게 편하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니고, 없는 게 악이 아닐진대 굳이 허세를 떨 필요가 있을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제3:17).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자신들의 영적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충고이지만 인생의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충고가 되는 말이라 생각된다.

진한 화장을 벗어버리자. 너무 진한 화장은 잠시 아름다워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 화장이 지워지면 흉물스럽게 된다. 그러다보면 또 덧칠을 하게 되어 아름다움이 상실된다. 나를 감추다보면 더 감출 일이 있게 되고, 그러다보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허식과 허세와 가식을 버리고 우리 솔직해지자.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2017년 말 통계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 2백만 대가 넘었다고 한다. 국민 2~3명 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기에 이른 것이다. 요즘엔 거리에서 예전처럼 낡아 탈탈거리는 차를 보기 힘들다. 매연을 뿜어대거나 시커먼 먼지를 뒤집어쓴 차도 역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교통법규준수나 운전매너 등이 그에 걸맞게 지켜지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깨끗해진 차만큼이나 운전자들의 질서의식도 선진화되기를 바란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교회는 주유소요, 정비소요, 세차장’이라 정의하셨다.

“교회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야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며 영적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정비소입니다. 정비소는 차를 고쳐주는 곳입니다. 차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갑작스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 수명을 다 탈 수도 없습니다. 자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길을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세상과 짝하다가는 그날 그 시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며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질 것입니다. 시

시록의 경고대로 결국 지옥행입니다. 이 중간점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양쪽에 쓰임 받다가 결국에는 양쪽으로부터 버림 받아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왕좌왕할 겁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며 영·



교회는 주유소요, 정비소요, 세차장이자

움직이려면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기름이 없이는 아무리 고급 명차라 해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저녁에 기름을 채워놓으면 새벽에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지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또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교회에 나와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대형주유소가 있으면 간이주유소가 있는데, 대형주유소는 많은 기름을 준 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많은 차가 몰려와도 넉넉히 기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 무리를 이끄는 목사는 더 기도하고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

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병과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세차장입니다. 험한 세상을 달리다 먼지로 뒤집어쓴 차를 깨끗이 닦아내어 빛을 내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찌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영·혼·육에 주를 잡힌 것 없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발은 세상에 걸쳐놓아서 안 됩니다. 그러다간 가랑이 찢어집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경계인의 삶은 뜨뜻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린다는 게

혼·육에 광을 내야 합니다.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채우고, 정기적으로 정비소에서 점검하며, 자주 세차하면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 수명을 다하도록 탈 수 있다. 오늘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서 기쁘고 건강한 삶을 살뿐 아니라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복의 복을 누리자.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민14:27~30)

너는 원망이나, 감사나?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전10:10). 여기서 ‘어떤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갈망하던 출애굽,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도 잠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출14:11~12).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지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이릅니다. 그동안 갈증에 허덕이던 그들은 마라의 물을 보자 좋아했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출15:24).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쓴 마라의 물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원망은 나쁜 바이러스요 감사는 좋은 바이러스다

그러나 출애굽기 16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여전합니다. 이유인즉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와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느도다”(출16:3). 민수기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민11:4~6). 그래서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또 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때마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

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족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출17:3). 이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호렙산의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열 두 명의 사람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고 모

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



총회장 이초석 목사

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민14:2~3).

민수기 21장에도 그들의 불평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영토를 통과하여 요단 서편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여 결국 에돔을 우회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매우 지친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민21:5).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민14:27).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1장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불의 심판을 내리셨고, 민수기 14장에 원망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고 하셨고, 민수기 21장에는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뱀을 풀어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쩌면 저러냐? 좀 심하지 않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 좀 나을까요? 글썽

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피조물과 같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하다가도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원망(怨望)이란 남을 탓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내 탓, 남편 탓, 교회 탓, 세상 탓, 시대 탓, 하나님 탓을 하다보면 원망이 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를 탓하고, 부족한 자기를 탓해야지 왜 남 탓을 합니까?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잠19:3).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욕을 보고도 깨달아야 합니다. 욕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과 재산은 물론이요, 자신의 몸에 악창이나 기왓장으로 몸을 굽어야 하는 비운의 사나이로 전락합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하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1:22).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욥42:12~17). 여러분도 원망의 입술을 닫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원망의 입술을 꼭 닫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약5:9).

성경(聖經)은 우리의 거울이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살전5:18). 이는 매사 원망 대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욕에게 하신 것처럼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다투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감사했더니 원수의 목전에서 잔이 넘치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은 전염이 잘 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가나안을 다녀온 열 명의 정탐꾼이 원망하기 시작하니 이스라엘 전체가 원망한 겁니다. 원망 잘하는 사람이 있겠랑 떨어지세요. 그래야 삽니다. 대신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 곁으로 가세요. 그러면 나도 매사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도 좋은 바이러스와 같아 전염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살다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당신은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일편단심(一片丹心)

초등학교 시절, 대학을 잠시 휴학하고 온 큰형이 한동안 집에 머문 적이 있다. 나 하곤 떠 동갑인지라 말이 형이지 삼촌뻘이었다.

당시 건넌방 셋집 책꽂이에 안테르센 그림 동화집이 꽂혀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에 형이 그 동화책들을 보는 것 같았다. 많이 무료한가보다 했다. 그런데 형이 그 동화책 가운데 ‘인어공주’를 보았다며 눈물이 날만큼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오로지 왕자님만을 사랑하는 인어공주의 애절한 운명에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다. 형이 좀 한심하게 느껴졌다. 애들 동화나 보며 훌쩍거리다니.

그런데 내가 그 나이가 지나고 나니 동화라는 장르가 결코 애들이나 보는 것도 아니며, 설령 그렇다 쳐도 그 속에서 인어공주의 입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을 가슴 저리게 공감한 형의 순수한 영혼이 느껴졌다.

안테르센은 동화적 판타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그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육지의 왕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 인어공주는 왕자와 인간으로 만나기 위해 마녀에게 목소리마저 뺏긴 채 병어리가 되었다. 육신은 비늘을 벗고 인간의 다리를 얻어 걷게 되었지만, 걸을 때마다 온 몸을 찢러대는 고통도 견딜 수 있었지만, 왕자를 보고 만나고 만질 수 있어 행복했지만, 병어리가 되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고 결국엔 왕자의 사랑도 얻지 못했다. 왕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족들의 애타는 비원을 뒤로 하고, 인어공주는 칼을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리고 공주는 그 아픈 사랑을 간직한 채 바다의 거품으로 사라진다. 왕자와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인어공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위해 자신을 버린다. 목소리를 잃어도, 걸을 때마다 칼로 찢기는 고통을 당해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도 인어공주는 기꺼이 그 사랑을 선택한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마치 아가서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아8:6).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인간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피 흘리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최고 경지의 사랑이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철저한 희생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답해야 한다. 누가 복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이전의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전 영혼을 예수께 드리며 오직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 그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세상 명예, 재물, 목숨까지도, 그 무엇을 다 잃는다 해도, 죽음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일편단심의 사랑을... Henry Han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자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경기에서 임효준 선수는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임효준 선수는 인대파열과 골절 등의 치명적 부상으로 7번이나 큰 수술을 해야만 했다. 선수 생활 내내 그가 걸은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닌 부상과 재활이라는 힘든 시간들이었다. 임효준 선수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부상이 계속되는 동안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힘들 것 같다는 불안도 함께 왔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스스로의 불안을 이겨내었고, 그는 결국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낼 수 있었다. 임효준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플라워 세리머니 때 검지를 올리는 포즈를 취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성경말씀(히 11:1)과 같이 믿음은 당장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에 있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눈을 뜨면 현실의 상황은 해결해야 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기에 현실 그 자체가 고난일 수 있다. 하지만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슴에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소망을 품고,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지 않으려면 삶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훈련해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는 것, 무슨 일이든지 끝이 있고 영원할 수는 없다. 고난과 역경도 마찬가지이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 스스로의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께 더욱 쓰임 받는 존재가 되길 소망하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하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시62:1~2). 김성일 cre8tor@naver.com



:: 진리의 학당 ::

하나님의 후사 (히브리서 1:1~4)

성경에서 무엇을 보는가? 성경을 알고 누리는 행복이 있는가? 성경이 수정같이 맑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막힘이 없는가, 아님 이삭집 부려놓은 것처럼 복잡하고 어수선힌한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란 ‘신’이란 말이고, 아버지라 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이다(요17:1). 근본도 모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말씀을 성경의 근본(根本)이요 성경의 대의(大義)로 이해할 때 성경전체가 한 쪽의 그림처럼 명료해진다.

성경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가 아니라, 영원전에 아버지가 후사로 세우신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요17:11)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한 설계와 과정이므로(마28:18), 성경은 하나님의 후사를 앞으로써만 풀어지는 구도로 짜여 있

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만물을 다 아들의 손에 주셨다(요5:35).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거나, 그가 보내신 성령을 거부하면서 신학이니 철학이니 하면서 인본적 수단으로 분석분해하려는 사람에게 성경은 잡다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성경 속의 보화를 캐내지 못한다. 그래서 현대신학은 하나님을 말한다면서도 대체로 끝이 보이지 않는 이론을 전개하며 미궁에 빠져 있는 것일 터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말한 것을 예수가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다(히 1:1~2). 그때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고, 성전에서 드린 제사는(히 9:9~10) 예수가 이루실 일의 예언이다(히 9:11~15).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으리라’ 하심같이, 예수의 몸이 헐리고 부활하여 참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은혜와 진리이다(요2:19~21). 예언과 모형과 비유는 그 후사로써 완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창조도, 이스라엘도, 성전도, 율법도, 제사도, 인류도 모두 하

나님의 후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를 이해할 때 성경을 아는 기쁨과 함께 능력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요8:32).

하나님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마3:17,17:5)이라 증거하셨다. 오직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다.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요15:5). 예수 밖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행7:52).

하나님의 후사를 빼놓고 인간을 말할 수 없다. 인간은 그의 모양이요 그의 선지자와 증인으로 쓰실 도구이기 때문이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었으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또 고난도 함께 받는다(롬8:17).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바알세불에게 속할 뿐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후사인 나를 믿으라’(요14:1)하심은 하나님을 본 자 없지만 자신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나타내셨음이다(요1:18). 우

리는 허영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 그를 완전히 체험하였고 그를 보았고 그를 알고 영생하는 자들이다.

후사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요1:14)다. 입으로 진리, 진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접한 것이요, 그가 독생자로 보이면 영광을 받은 것이고 영이 열린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세불에게 속했던 안타까운 인생이 그 영광을 보았다(마4:14~16).

그를 후사로 봄으로써 그에게서 진리를 보았고 그에게서 은혜를 보았고 그에게서 영광을 보았어야 한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후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요,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은 아들의 아버지이시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요17:20~21)는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다는(요19:30)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

박덕규 목사 pdkew12@hanmail.net

:: 성경에서 배운다 ::

:: 참된 깨달음 ::

변화의 용기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만 해도 드론으로 오륜기를 만드는 퍼포먼스는 기본이다. AI 안내로봇이 올림픽 홍보관에서 4개 국어로 관광객을 안내하고, 창문에 나타나는 홀로그램으로 영상통화 및 경기를 관람하는 5G 버스가 평창을 누볐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적 변화의 한가운데 서있는 것이다.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이런 변화로 인해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사실 경고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생산시스템이 로봇화되면서 열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 연봉가격의 로봇이 불만 한마디 없이 해낼 수 있는 세상이 됐다. 하지만 사람들은 유독 그러한 변화에 자신을 맞추길 싫어하고 무시한다.

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랐다. “떠나라”(창12:1), “나오라”(창19:17), “버리라”(마19:27, 마16:24), “나를 따르라”

(마19:21) 같은 참으로 결단하기 힘든 변화의 명령까지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저없이 도전했다.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엄청난 변화와 도전 앞에 순종했고, 롯은 풍족하고 안정적이었던 소돔의 생활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을 따랐으며, 베드로와 제자들은 생면부지의 예수님이 생업은 물론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음성에도 망설임 없이 실행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은 거부이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모두가 멸망할 때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기적을 보았으며, 제자들은 가장 가까워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세계를 사모하다 순교자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여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영혼육의 축복을 누렸고, 예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세상이 정말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 앞에 서있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위를 걷거나 모세처럼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변화도 이미 겪어본 우리가 아닌가?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니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날 기회이기도 하다. 배운 적이 없고,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다는 핑계보다 하나님이 그런 나도 세상가운데 높이실 것을 믿고, 구하고, 찾아보자! 변화의 주인이시자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손 내미시고 인도해주실 것이다.

하인명
renming@daum.net

요, 더욱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끝이 있지만, 죽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영생복락의 천국에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는 영원영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 어떤 준비보다도 사후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사후를 준비하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생활 속의 잠언 ::

감사를 잊지 말자

직업상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깔끔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틈틈이 피부과로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닌다. 지난번 관리 이후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져서 다시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원장님이 백만 원 이상의 피부 관리를 조건 없이 서비스로 해주셨다. 너무 감사해서 관리를 받는 동안 내내 병원에서 나가자마자 백화점 꽃가게로 달려가 예쁜 선물과 꽃바구니라도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을 나오는 순간 급한 전화를 받으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제자 중 한명이 피아노 전공을 한다고 십년을 노력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아노 전공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오랜 상담 끝에 수시전형으로 모 대학의 언어영학과에 원서를 넣게 되었다. 결과는 놀랍게도 수석합격과 더불어 4년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 학생 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지금 찾아뵙겠습

니다.” 고마워서 인사라도 드리러 찾아뵙겠다고 하였던 학생의 어머니는 그 이후로 소식이 없다. 감사의 순간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을 다시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다.

요즘 며칠 동안 바닥을 치는 심각한 우울 증상을 앓고 있었다. 이유인즉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생기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성경묵상을 했지만, 우울 증상을 회복하기는 힘들었다. 한동안 눈물로 회개 기도를 시작했고, 통곡의 기도를 한 후 찾아온 주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었다. 매 순간을 감사와 찬송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한번 놓쳐버린 감사를 잊고 살아온 것이었다. 나는 어느새 주님께 치료를 받고 사라져버린 문둥병환자가 되어있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소중하다.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고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

는 것이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언제라도 찾아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이 감사하며,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교회신문에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푸른 초장 설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벗들이 있음이 감사하며, 소중한 기업을 허락하셔서 감사하다.

잊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우울한 마음은 사라졌다. 혹시 오늘 주님께서 치료해주신 문둥병환자를 찾으신다면 “예!”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사랑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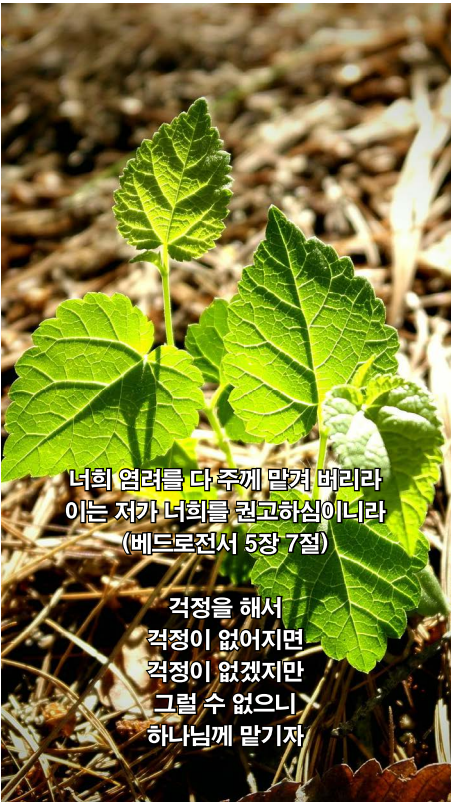
아주 오래전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죠? “사랑을 하려는 예뻐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호박꽃 같던 얼굴도 백합화처럼 고귀하게 보이고 할미꽃 같던 얼굴이 장미꽃처럼 아름다워집니다. 두꺼비처럼 투박한 손도 어찌면 그렇게 귀엽고 복스럽게 보이는지 다 좋고 다 예쁘고 모든 게 만사 OK입니다. 모자라도 모자라게 보이지 않고 넘쳐도 넘쳐 보이지 않는 게 사랑이 주는 힘입니다.

97년도에 신학생자격으로 영성훈련에 참석했는데 힘든 훈련과 비인격적인 몇몇 분 때문에 마음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주님 앞에서 감히 그럴 수 없어 꼭 참고 견디었지요. 그날 저녁 기도시간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 주었거늘 너는 그것도 못 참겠느냐! 그 일도 못 하겠느냐?”고 묻는 매우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 품안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주셨는데… 참으로 많이 울며 회개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 일도, 그것도 못 참겠느냐?”는 성령님의 음성은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준 에너지원이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깨달은 건 하나님의 일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박한 성경지식으로 가득 채워도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기름부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그저 성경지식으로 그칠 뿐입니다. 하나님을 천만번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정말 내가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일만은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버지를 아주 많이 사랑하니까요.”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너희 열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자가 너희를 원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자